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뛰어난 식견과 냉철한 판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지도자가 그리운 요즘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들이 나타나 어려움을 해결하곤 했다. 뛰어난 지도자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경륜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서 그 역할을 최대한 발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신뢰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독일에 맞서며 연합국을 승리로 이끈 중심에는 처칠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정치가들은 전쟁으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정된 삶을 약속하였다. 특히, 독일의 팽창에 대해 체임벌린 총리(영국 제60대 총리)는 협상을 기반으로 한 외교적 유화정책으로 영국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다.

‘희망의 리더십’이 그리운 요즘

반면 처칠은 히틀러의 위협을 경계하면서 강하게 대응해 나갔다. 1939년, 인근 국가를 침략하기 시작한 독일은 이듬해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유럽대륙은 전쟁에 접어들었다. 처칠이 총리로 임명된 시점은 영국이 전쟁에서 상당히 열세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회 연설에서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결연의 메시지를 통해 동료의원들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독일과 맞섰다. 처칠의 뛰어난 웅변과 리더십은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새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다.

몰살 위기에 처한 연합군을 구하기 위한 프랑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만-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진다. 독일군이 덩케르크 인근에서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군을 포위함에 따라 심각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군함과 민간 선박, 어선, 오토까지 동원하여 9일 동안 약 34만 명의 아군 병력을 구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철수 작전을 성공시킨 이후 처칠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아니지만, 위대한 구출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투쟁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57일간 지속되었던 독일 전 투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국민들이 지하벙커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하자는 처칠의 라디오 연설을 들으며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버텨나갈 수 있던 배경에는 처칠의 ‘희망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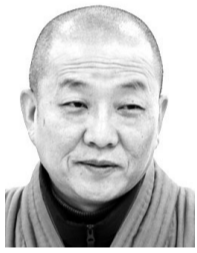
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였다. 화가, 문필가로서도 그의 뛰어난 능력은 위기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승리를 쟁취하는 탁월한 지도력의 바탕이 되었다. 2002년, BBC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역사를 만든 위대한 영국인 100인’을 뽑았던 설문조사에서 셰익스피어, 뉴턴을 제치고 처칠이 1위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 새로 발견된 5파운드 지폐 뒷면에는 처칠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다. 학교생활 부작응자, 낙제생, 사관학교 3수 등 뛰어난 지도자로서 젊은 시절의 모습은 아쉽지만, 그 모든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합해 결정적인 순간에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역사 속에 남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처칠은 교육과 가치관의 형성, 축적된 경험을 통해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충실히 하였고 실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지도자로서 준비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시대를 읽는 식견, 뛰어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여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신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어두운 밤, 등불과도 같은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윈스턴 처칠 못지않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고 지금도 잘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처칠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이끌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이 있는 ‘희망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종교칼럼

소소한 행복, 간절한 희망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구레 시외버스터미널 정도의 규모라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시설은 현대적이고 깔끔하다. 무엇보다 채광이 좋다. 건물 내부가 무척 밝고 화사하다. 우리가 타야 할 버스는 30분 뒤에 온다고 한다. 일행들은 그새 삼삼오오 흩어져 버렸다. 아마도 봄날인 듯, 우리들은 주말에 교외로 나들이가는 참이었다.

“사실 이렇게 교외로 나가는 게 올해에 이제 겨우 두 번째야. 그리고 보니 첫번째도 여기서였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독백처럼 말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다. ‘사는 게 뭐가 그리 바빠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갈 시간도 없을까?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놀러도 가니 얼마나 좋아!’ 허물없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마음 설레는 나들이길이다. 행복하다. 다른 말은 더 필요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꿈이었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돌아와, ‘꿈만 같았던’ 조금 전의 꿈을 되새긴다. 화사하고 구김살 없는 꿈이었다. 티없는 행복만 가득한 순간이었다. 왜 꿈같은 시간들이 꿈 속에서 펼쳐졌을까? 마음 속 깊이 잠복해 있던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이 꿈

으로 떠오른 것일까? 미련을 가질만한 삶이 내게 있거나 했는가?

일상은 희노애락에오욕이라는 물감으로 그려내는 한 폭의 그림이다. 세상이 아무리 민주적이고 평등하더라도 그래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희노애락에오욕이 점철된 삶의 본질, 흔히 소소한 행복으로 미화되는 바로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근대 이전까지의 사회는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일상 속에서의 고만고만하고 소소한 행복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대다수 민중들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온전하게 지키기 매우 어려웠다. 밑은 ‘자유론’에서 말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자유론’, 책세상, 36쪽)

자유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소소한 행복이자, 실존이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침탈하는 것은 국가권력이다. 권위적인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은 끊임없이 억눌리고 통제되고 강제된다. 민주주의의 성취가 정치적 영역에 머무르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각종 차별이 여러 분야에 만연하다.

21세기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불과 70

여년 만에 전쟁의 폐해를 딛고 당당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이 나라에서,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친위쿠데타가 자행되었다. 도저히 믿기 싫은 일이다. 그리고 날이 더할 수록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12·3 계엄의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집권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엄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뒤흔든다. 오죽하면 전두환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 KBS는 “보통사람들”이라는 일일연속극을 매일 저녁 방영했다. 당대 유명한 배우들이 총출동한 탓에 전혀 보통사람스럽지 않은 사람들로 도배된 드라마였다.

역설적이게도 희망은 ‘희망스럽지 못한’ 현실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다. 매일 터지는 계엄 관련 뉴스를 접하며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80년대로 이 사회가 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나오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였다. 소소한 행복이 간절히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겨울바다처럼 싸늘하게 얼습해오는 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다시 봄날을 꿈꾸게 한 것이다.

아직은 겨울의 한가운데, 6시가 넘어도 여전히 날이 밝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칠썹같은 어둠뿐이지만, 곧 날이 밝을 것임을 나는 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금씩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리고 나는 거부한다. 모든 폭압과 불의와 차별을.

기고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No! Plastic, Yes! 966’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현대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장을 넘어, 지구와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스포츠 대회로 치러지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30년부터 탄소 중립적 대회로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회를 통해 탄소발자국 감소와 생태 보전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2024 파리 올림픽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의 위기 속에서 개최되는 ‘역사상 최초의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고 저비용·저탄소·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에어컨 없고, 경기장 안 짓고, 채식 늘려 탄소 배출량 줄이’는 친환경 대회’로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폭우와 습막히는 더위 속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또한, 2028 LA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기치로 ‘자동차 없는 올림픽’ ‘배출가스 제로’ 정책으로 무공해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앞당긴다는 계

획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지속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만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해 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 등 주요 배출원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전환, 도시 숲 조성 등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에는 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교통 부문의 감축을 위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전환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 도보 친화적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더불어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No! Plastic, Yes! 966’이라는 기치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친환경 대회를 준비중이다. 지속가능한 양궁대회의 실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No! Plastic, Yes! 966’은 경기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종이 인쇄물 미사용 등을 통해 친환경 대회로 치러, 소나무 966그루 식재 효과를 거두 탄소발자국을 줄인다는 의미이다.

첫째, (No! Plastic Bottle!) 참가 선수단이 텀블러를 지참(미지참 선수는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해 경기

장내에서 일회용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둘째, (No! Plastic Box!) 경기장 중식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으로 일회용 도시락 용기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셋째, (No! Paper!) 선수단 안내 홍보물 등은 QR 코드 활용 디지털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종이 홍보물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넷째, (No! P.P! 홍보관) 탄소발자국 체험 홍보부스 운영하여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스포츠 대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하여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친환경 저탄소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회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글로벌 스포츠 커뮤니티에 확산할 수 있는 레거시로 남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실천대회로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양궁의 도시 광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시의 친환경 비전을 실천하고,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이라는 슬로건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알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社說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자진출두가 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번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의 집행 절차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다. 대통령 신병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고, 경찰과 군이 다투는 목불민권의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진 탓이다. 무너지는 국력과 부끄러움을 국민들이 온 몸으로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사전구속영장도 서울중앙

지법에 해야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납득도 공감도 되지 않는 억지이다. 피의자가 법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주장인데,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다만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과 검찰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어느 쪽이든 다치는 불상사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다시 경찰끼리 싸우는 모습을 자라나는 세대에 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스스로 걸어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도 공권력 기관들의 출동 이전에 대통령이 자진출두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참사 수습 인력 트라우마 치유에 총력 지원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2주일 가까이 되면서 현장 수습과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대체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유가족을 비롯한 현장 투입 인력들이 겪는 트라우마라는 후유증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증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트라우마센터가 운영중인데 지금까지 380여명이 이곳을 찾아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300여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용자 중에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물론 소방대원과 경찰 등 현장 투입 인력들이 많다. 유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야 이 루 말할 수 없겠지만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도 심각한 수준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7일 현장 수습이 이뤄졌는

데 이때 투입된 소방대원은 3700여명(중복 포함)으로 대다수가 무안·함평·영광 등 지역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직접 수습하면서 경험한 참혹한 기억이 내내 잊혀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상담 과정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괜찮아 질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 그럼에도 다시 그때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트라우마센터가 운영중인데 지금까지 380여명이 이곳을 찾아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300여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PTSD로 인한 트라우마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나서 치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현장이 정리된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치유에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유가족은 물론 소방대원을 비롯해 현장에 투입된 수습 인력들이 하루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

無等鼓

‘드라마, 오징어게임’ 456명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한다. 1인당 1억원씩 책정된 이 게임에서 패자는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원씩 적립돼 최종 우승자가 돈을 챙긴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시리즈 ‘오징어 게임’ 이야기다. 오징어게임은 매일 하나의 게임을 마친 뒤 살아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게임을 이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한다.

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국민들도 분열되고 있다. 드라마 속 인물처럼 우리 국민도 가슴에 보이지 않는 ‘O·X’ 표를 각각 붙이고,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현실도 드라마 전개와 유사한 흐름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이 폭설에도 응원봉을 흔든 진보당 정태경 의원의 사진을 윤 대통령 지지자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는 촛군을 빚기도 했다.

투표를 통해 다음 날에도 게임을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가슴에 ‘O’ 표, 반대하는 참가자는 ‘X’ 표를 붙여야 가령 첫날 게임에 서 50명이 죽었으면 총 상금은 50억원이 되며, 남은 사람이 이상금을 나눠가져 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게임을 더 하거나 참가자들이 많이 죽을 수록 쟁길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덩달아 매일 밤 진행되는 투표의 결과도 점점이 합쳐어진다. 드라마에서는 찬반이 팽팽해지면서 양 진영이 서로 죽이는 비극까지 벌어진다.

어른조사를 둘러싼 ‘O·X’ 논쟁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40%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각 진영이 표단속에 나서는 후진적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이태원 사태에 몰두하고, 야당도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을 포기하고 자식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김문수 국회의원을 맹비난했다.

차이점은 있다. 드라마는 재미라도 있지만 현실은 비극 그 자체이며, 더 많은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실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